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

□ 외교부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 7. 29.(목) 24:00(한국시간 기준)까지 아래 의견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 검증 기간(의견 접수 기간) : 2021.7.14.(수) ~ 2021.7.29.(목) 24:00(한국시간 기준) (16일)

○ 의견제출처: 이메일(hmkim13@mofa.go.kr), 팩스(02-2100-7973)

※ 아래 명단은 최종 추천대상자가 아니며, 이번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외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포상대상자(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제출하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 허위, 비방 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는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명과 연락처 미기재시 제출하신 의견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이 게시물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 성명 가나다 순)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1	강대호	오레곤 한인회 이사	•강대호는 2007년 오레곤 한인회사무총장을 시작으로 한인 사회 봉사활동에 나섰으며, 주정부운전면허교본을 한글로 번역하여 영어가 불편한 한인동포들이 운전면허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인 권익신장에 기여
2	강성길	유타한인회 이사장	•강성길은 2008년 유타한인회이사로 위촉된 이래 13년 이상 동포 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며 주류사회 내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
3	강신규	독·한 협회 자문위원	•강신규는 매년 ‘한글날’ 행사, ‘신비의 나라 한국축제’ 를 개최하고, 한국 전통문화공연,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 전시, 한반도 정세 관련 강연회, 한국 관련 워크샵 등 수많은 행사를 개최하여 현지 독일인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한·독 우호친선 교류에 크게 이바지
4	강용환	Hospital Munipal Peruibe 병원장	•강용환은 상파울루주 소수 교민 거주지역인 LitoralSul에서 29년째 후학 양성 및 의료 봉사활동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널리 알리고 조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
5	강의현	몽골 인문대학교 교수	•강의현은 28년간 몽골국립외대 교수로 현지 한국어 교육에 이바지 하였으며 태권도 보급 및 몽골 한인동포 역사 정리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한·몽 우호증진과 몽골 한인 동포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
6	강정자	재일본대한민국 부인회 교토부지방본부 교문	•강정자는 53년간 재일본 대한민국 부인회와 민단 교토부 지방본부에서 여성 동포 리더로서 동포사회 및 동포단체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재일동포의 인권 및 권익 옹호활동에 기여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7	강철인	폴란드 태권도협회 기술위원장	•강철인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폴란드 한인회총무 및 부회장으로로서 한인사회 단합 및 한국의 위상 제고 그리고 한국 문화 소개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태권도 협회 기술위원장으로 한·폴란드 체육 교류 증진에 기여
8	고서숙	고송문화재단 이사장	•고서숙은 인천광역시 및 호놀룰루시 국제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31년간 민간외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류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한인 위상 제고 및 하와이 동포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9	구일회	재파라과이 한인회장	•구일회는 이민2세대 출신 한인회장으로 파라과이 한인사회의 단합과 주재국내 한인 위상 제고를 도출해낸 성공적인 동포사회 세대교체의 모범사례이며, 특히 주재국국민과 함께 하는 한국문화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 저변 확대 및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전체의 한상 활동에 크게 기여
10	구자선	평화식품 회장	•구자선은 약 42년간 토론토 한인동포사회 및 주류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후원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한인2세 장학사업 시행, 차세대 한인정치인 지원, 토론토 현지사회 내 한식 및 한국 식자재 전파 등으로 토론토 한인동포사회의 발전과 화합, 권익신장 및 현지사회에 한국 이미지제고에 적극 기여
11	권오철	재중경한국인(상)회 고문	•권오철은 다양한 한인단체의 위원을 역임하며 기업인 정보를 공유하여 한국 기업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충청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화 유지 홍보 행사, 교민 한민족 단합대회, 청두총영사관 업무 협조 등 중경 한인사회의 발전과 화합 및 소통 강화에 기여
12	길옥희	TM Catering Co.(고려관) 대표	•길옥희는 쿠웨이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며 한식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동포사회에서 열리는 행사를 꾸준히 지원하며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
13	김경자	한국전참전기념비 위원회 자문위원	•김경자는 28년간 오렌지카운티 한인 지역사회(이사장역임)에서 동포를 위한 권익신장, 왕성한 봉사활동, 한반도 평화 통일 염원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및 한인차세대를 위한 정보교류, 연대강화, 미주 현지인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동포사회 단합 및 한국이미지 제고에 기여
14	김기인	필리핀한국 여성연합회 이사	•김기인은 37년간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필리핀 한국여성연합회(구 한국부인회), 민주평통,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회원 및 임원으로 활동하여 한국음식 체험행사 기획, 태권도 한국무용 등 한국문화행사 기획으로 한국 알리기에 앞장섰으며 현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의료봉사 등 현지사회기여로 국의선양
15	김남일	하얼빈 한인회장	•김남일은 하얼빈한인회에서 한국기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여 동포사회 단합과 한국이미지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
16	김덕원	젯다 및 서부지역 한인회장	•김덕원은 34년간 사우디에서 태권도 보급 및 태권도협회 독립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한인회장으로서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
17	김도순	한태 상공회의소 前 회장	•김도순은 한태상공회의소회장을 역임하면서 태국 진출 한국기업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태국 내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
18	김동현	파키스탄 대한한인회 회장	•김동현은 2001년부터 한인회장을 맡아 파키스탄 내 한국문화홍보 소개하고, 만성적인 테러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을 보호하는 등 주재국과의 교류증진 및 재외동포의 안전과 보호에 힘씀
19	김맹환	남아공 한인회장	•김맹환은 사단법인 WorldOKTA 남아공 지회 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기업의 남아공 사업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한·남아공 경제 교류 증진 및 지역한인경제 활동에 기여
20	김병송	제일본대한민국민단 시즈오카현본부 하마마츠지부 상임고문	•김병송은 1970년 하마마츠 청년회 회장을 역임한 이후 외국인교령자 복지수당 증액, 하마마츠 한인회관 건립 지원, 서울-이와타시 청년회의소의 자매결연 결성 등 모국의 경제발전과 동포사회의 권익신장과 한·일간 경제·문화 교류증진을 위해 헌신
21	김성준	멜버른상공인협회 자문위원 회장	•김성준은 호주에서 최초로 한국 품종의 채소를 생산하며 김치공급업체를 운영함으로써 '한국김치'에 대한 현지 인지도를 높이고 멜버른상공인협회 회장으로 교민자녀 장학금 지원,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 교민사회의 화합에 기여
22	김소곤	시카고 아리랑라이온스클럽 前회장	•김소곤은 주미 한인입양인 한국 방문 지원활동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에 기여하고, 한인사회가 주류사회에서 정치적 힘을 낼 수 있도록 한인 네트워크 구축, 한인 사업체 대상 교육 실시 등 한인 권익신장활동에 기여
23	김수홍	뉴햄프셔한인회 부회장	•김수홍은 고령층 한인동포를 위한 미용, 식사 대접, 사고 대처방안 강연 개최 등 다양한 봉사활동 진행 및 뉴햄프셔 한글학교와 도서관 설립, 한국전참전 용사 감사 행사 참여를 통해 동포사회 단합과 한국이미지 제고에 기여
24	김숙자	쿠웨이트한글학교 교장	•김숙자는 지난 15년간 쿠웨이트 현지 지체장애 아동 돌봄 봉사 및 제3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Foodcare봉사, 한인회부회장, 한글학교 교장을 맡아 동포사회 단합 및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국격향상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
25	김승권	플로리다 한인연합회 이사장	•김승권은 27년간 한인회 주관행사 개최 및 한국어교실 운영을 통해 동포권익신장과 유대강화에 힘썼으며, 1997년부터 창원시-잭슨빌시 자매도시위원장으로 경제, 문화, 청소년홈스테이, 대학 간 어학연수 교류성과를 이뤄 대한민국 홍보와 양국 간 교류증진에 이바지
26	김연식	제일본한국인연합회 고문	•김연식은 제일본 한국인 연합회, 재일 한국인 귀금속협회의 고문으로서 차세대 한인 귀금속 기술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멘토링 및 교육을 진행하고 매년 코리아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며 재일동포사회와 한일민간교류 및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
27	김영리	바르셀로나 의과대학생	•김영리는 14년간 교민행사, 공관주최 및 현지행사 등에서 사물놀이(장구)공연을 통해 동포사회 화합을 도모하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음악을 현지에 소개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및 문화공공외교에 기여
28	김영환	미동부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회장	•김영환은 먹자골목 상인번영회 회장으로 뉴욕지역에 한식을 전파하고 뉴욕 시의원 출마를 후원하며 동포사회의 정치적 권익향상에 기여
29	김오남	제일본 대한민국민단 시마네현지방본부 단장	•김오남은 제일본 대한민국 민단 시마네현 지방본부 민단장으로 민단에 입단한 이래 14년간 동포사회의 발전과 동포 간 단합을 위해 노력했으며, 한일 간 친선도모를 위해 가교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의 이미지제고 및 권익증진에 기여
30	김운천	제일본한국인연합회 부회장	•김운천은 사랑의 나눔 봉사단체를 설립하여 세계 불우 어린이를 후원하고 일본의 자연재해 발생 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재일동포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후원 및 봉사활동을 지속하며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31	김은경	멜번저널 편집장	•김은경은 43년간 현지 방송국 아나운서, 동포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한인 이민 역사 일괄정리, 정기 간행물 발행, 다양한 문화 공연 개최 등을 통해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32	김인수	민단오키나와현지방 본부 상임고문	•김인수는 민단 오키나와현 지방본부 간부를 역임(총21년)하면서 동포사회 권익증진 및 인권옹호, 민족정체성함양, 차세대육성, 한일 문화교류증진 등에 크게 기여
33	김인현	재아르헨티나 대한체육회 자문위원	•김인현은 30년간 현지인 한국학교에 정기 후원하여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인사회 경로행사 개최, 각종 체육대회에 청년동포 팀을 인솔·출전하여 교민사회 화합 및 동포청년의 애국심 고취와 단결심 향상에 기여
34	김정수	상파울루 SESAME LTDA 대표	•김정수는 2008년부터 브라질 한인동포를 위한 여성 지도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오면서 여성 지도자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
35	김종훈	중남미한인회 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종훈은 6년간 재멕시코한인회에서 문화행사, 체육대회, 교민 송년의 밤, 동포사회 및 현지인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동포사회 단합 및 현지 멕시코에 한국 이미지제고에 기여
36	김진자	재독한인간호협회 이사	•김진자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재독 한인간호협회, 지역한인 등 다수의 재외동포단체에서 차세대 동포 교육 및 파독 근로자 봉사, 한독교류 130주년 기념 문화 행사 개최, 현지 양로원 봉사 등 동포사회의 발전과 한·독 교류를 위해 기여
37	김태수	오렌지카운티한인회 상임고문	•김태수는 한국의 날 제정 발의, 오렌지카운티 타운 번영회 창립을 통한 한인업주 네트워크 구축, 코로나 극복 자문활동 등 한인사회의 발전 및 한인과 미주류사회의 가교역할 수행
38	HARRY KIM (해리 김)	前 하와이 카운티 시장	•해리김은 118년 미국 이민역사에서 최초 직선제로 지방정부 시장에 당선된 이민 2세대 재외동포로 36년 공직재임기간 한인 자긍심 고취 및 한인위상 제고 등 하와이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
39	김현진	본한인회 감사	•김현진은 29년간 동포단체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한인동포들 간 유대강화에 기여하였으며,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어려운 동포들의 취업알선 등 자원봉사를 통해 동포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40	김호근	청도한국인(상)회 평도지회 회장	•김호근은 11년간 칭다오 평도 한인사회를 위해 정부 관계자와의 유대관계 유지 및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
41	故남문기	뉴스타부동산그룹 명예회장	•故남문기는 30년간 250만 명의 미주 해외동포를 위해서 각종 한인회 단체의 수장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동포사회의 권익신장과 단합 및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고, 특히 오랜 기간동안 한국인의 미국 정치 진출에 적극적으로 노력
42	남사랑	민단도치기현 지방본부 상임고문	•남사랑은 지방본부 3기관장을 전부 역임하면서 헌신적으로 민단사회에 50여 년간 봉사해왔으며, 특히 단장 재직 때 도치기 민단 한마당을 매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을 초대하여 한국문화를 알리면서 우호교류회를 실시하여 한일 간 민간교류 증진에 이바지
43	뉴욕한인회	단체	•뉴욕 한인회는 61년간 뉴욕지역 한인회를 대표하며 재외동포와 모국 간 연대강화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사랑 나눔 릴레이펀드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 아시안 혐오 범죄대응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
44	룡안 세계로병원	단체	•룡안 세계로병원은 약 15년간 베트남 남부지역 룡안성 및 인근 지역 베트남주민과 한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45	문경수	리츠메이칸대학 명예교수	•문경수는 32여년간 재일동포 및 한국현대사 연구 및 학술활동, 재일동포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제주 4·3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추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관련 동포사회 공감대 형성, 동포 및 한일 간 학술교류 증진 등을 통해 동포사회 발전과 권익증진, 한일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46	문계준	동관한국(상공)인회 회장	•문계준은 한인 체육대회 및 송년행사 후원, 한글학교와 문화센터 설립 및 예체능 계열 특별강좌 신설 등을 통해 지역 한인사회의 화합과 문화 교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발생 이후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민사회의 위기극복에 공헌
47	문성민	다롄한국인(상)회 자문위원장	•문성민은 1995년부터 매년 항일민족사적지 안중근 추모제 거행, 독립운동가 추모음악회 개최, 대련 고구려 비사성 사료 발굴, 답사, 연구 지원, 대련한국국제학교 관련 해외 자녀교육발전에 장기간 열정적 봉사, 다롄한인사회와 조선족 동포사회와의 화합교류에 상당한 공헌
48	문풍호	재독한인총연합회 수석감사	•문풍호는 23여 년간 재독한인총연합회 등 동포단체 임원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왔으며, 양국 청소년 간 상호교환 방문 등 차세대교류를 통해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
49	박남주	부인회 히로시마현지방본부 前회장	•박남주는 1980년 동포사회 민족정체성 고취를 위해 한국어사용과 원폭피폭자증인 찾기, 건강수첩취득활동에 전념하였고, 한국인 피폭자로서 증언활동과 비핵화운동에 앞장서는 등 재일동포의 권익증진과 대한민국 이미지 개선 및 피폭자 권익증진에 기여
50	박도병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부분부 前의장	•박도병은 36년간 재일동포사회의 발전과 동포들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등을 위해 공헌하였으며, 민단 및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민단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 재일동포사회발전 및 민단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각종행사 등에 총 1천만엔 상당의 금품을 지원
51	박상민	상해한국상회 (한국인회)	•박상민은 지난 6년 여간 사건사고 SOS솔루션(민간NGO)에서 활동하며 한인교민을 대상으로 사건사고 지원과 무료 법률 상담프로그램 및 의료안전시스템 구축으로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
52	박상운	상해한국상회 (한국인회)	•박상운은 재외동포와 현지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교민들을 위한 전세기 지원, 임대료 인하 노력, 광복절 문화제 개최를 통한 한국 제품 홍보 및 판매 등 상해지역과 재외 동포사회에 이바지
53	박상제	한중친선협회 중국지회 회장	•박상제는 재정도한국인회 이사장, 한중친선협회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현지동포사회의 화합, 한민족 이미지 제고, 한중경제교류 활성화, 차세대 교육사업 발전 및 사회봉사 문화 전파에 크게 기여
54	박영철	South Asia Apparels 대표이사	•박영철은 한인 축구회 회장으로 스리랑카에 축구 보급, 청년축구 동호회 지원 등 동포사회의 화합에 기여하고 스리랑카 고아원 지원과 사회공헌 및 스포츠문화 후원활동을 통해 국격 제고 및 기업 활동과 동포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55	박용근	다롄안중근연구회 명예회장	•박용근은 15년간 안중근감옥 내 사형장장소 최초 확인 조사, 안의사 기념관 전시 및 관동법원 내 진열관자료 수집 및 사료고증, 순국 100주년 추모식, 세미나 등 행사 개최, 안의사 유해 발굴 현장 직접 참여, 안의사 관련 서적 출판 등을 통해 동포차세대들에게 민족역사의식고취에 지대한 공헌
56	박의돈	재인도한인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의돈은 여러 한인단체 간부직을 역임하면서 오랜기간 교민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인도 간 우호관계 형성 및 비즈니스 협력네트워킹 구축에 기여했으며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 마스크 및 필수품 지원, 취약계층 인도인 지원 등 현지 사회에서 한국 이미지 제고에 공헌
57	박주상	재인도네시아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박주상은 현지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한국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태권도를 보급하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의 행사 지원, 코로나 극복 활동을 통해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58	박희수	아르메니아 한인회장	•박희수는 한인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한국문화센터 설립, 양국 간 문화교류 추진, 최초 고려인 문화의 날 매년 개최 등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
59	배응식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 대한민국 국제특사	•배응식은 40여 년간 대한민국 섬유 봉제 수출산업을 발전시켜 차세대 무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 용무도를 보급하고 인도네시아 국가 체육위원회 한국 국제 특사 자격으로 한국인도네시아 체육 민간 외교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단체에서 한인동포 사회를 위해 헌신
60	배종익	재뉴대한체육회 웰링턴지회 회장	•배종익은 웰링턴 대한 체육회 창립 이후 체육 교류활성화를 통해 한인사회 단합을 위해 노력하였고, 체육 꿈나무 및 한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한인 2세대 육성에 기여
61	백황기	샌디에고 한인회장	•백황기는 태권도를 미주류사회에 보급하는데 업적을 쌓았으며, 미국 최초로 3.1절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받아 지역주류사회에 한국과 한인들의 이미지 제고 기여
62	변호식	하문한인한상회 회장	•변호식은 2013년 사면 한인회장으로 취임하여 교민사회에서 한인회가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오으로써 한인회가 교민사회의 구심점으로 정착하는데 지대하게 공헌
63	부승배	민단도쿄본부 상임고문	•부승배는 도쿄본부회관 부채 반환을 위해 모금운동을 추진하였고 민단도쿄본부 상임고문으로서 지속적으로 제반활동에 참여하며 도쿄 한국학교 부이사장으로 차세대 재외동포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동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
64	북경 애심여성 네트워크	단체	•북경애심여성네트워크는 2007년 설립된 조선족 여성단체로 전통 문화계승 및 전파, 차세대 조선족 동포를 위한 장학사업, 한중 차세대교류 활동 지원, 국내외 다양한 국제행사 참여 및 활발한 활동으로 글로벌한 민족 여성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
65	빈춘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부분부 고문	•빈춘화는 53년에 걸쳐 부인회오사카본부와 지부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운동, 권익옹호 운동, 평화통일 촉진운동, 각종의 연금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민단조직과 재일동포 부인회 발전에 기여
66	서병희	캘거리 노인회 회원	•서병희는 2003년부터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회장, 캘거리한인노인회 회장, 캘거리한인회 이사, 그리고 캘거리한인공연예술단 단장 등으로 봉사하며 캘거리 한인동포사회단합에 크게 기여
67	서옥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가나가와현본부 상임고문	•서옥출은 재일동포 2세로 지금까지 민단 주최행사에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하여 재일동포 사회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관할지역 민족재산인 가나가와 한국회관 보존 및 일반재단법인 민단 가나가와 설립에 큰 역할을 수행하여 민족 정체성 성립에 기여
68	손종원	재독한인총연합회 상임고문	•손종원은 5.18 민주화 운동 독일기념 사업회 회장, 재독 한인총연합회 회장 및 상임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역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한인들의 유대 형성 및 단합, 동포사회와 차세대동포의 역사의식 제고 노력 등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
69	신도형	시애틀 대한부인회 상임이사	•신도형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40년 이상 대한부인회에서 봉사 활동을 전개하면서, 오늘날 대한부인회가 미국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보조, 주거지원, 치매관리 등을 수행하는 미국 내 최대 한인단체로 성장하는데 기여
70	신순옥	민주평통 자문위원	•신순옥은 매년 떡국 및 송편 나눔 행사, 한인 친선 축구 대회 개최, 무료 사물놀이 공연 등 동포 사회의 화합에 기여하였고, 말레이시아 내 고아원 물품 지원, 불우이웃 돕기 봉사 등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71	신우순	재일본한국인연합회 부회장	•신우순은 재일본한인사회의 권익신장과 교민들의 화합에 앞장섰으며, 2000년부터 약 20년간 한국산 수산물의 대일 수출에 힘써왔으며, 현재 투루월드제팬의 대표로서 일본 내에서 한국 상품의 대일 수출 확대 및 동포사회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72	알래스카 앵커리지 한인회	단체	•알래스카앵커리지한인회는 1973년 창설 이후 한인 타단체와 화합하여 한인사회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문화사업 및 조국을 기리는 3.1절, 8.15광복 행사를 진행하여 한인동포들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하였으며, 앵커리지 한인복지를 위해 크게 노력
73	양성애	세부한인여성회 회장	•양성애는 2010년 Philkor Space Development&Construction社와 세부한인여성회 회장으로 지역 주민들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 필리핀 빈곤가정 후원 등 한·필 양국 교류확대와 동포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
74	에드먼튼 한인 라이언스 클럽	단체	•에드먼튼 한인 라이온스클럽은 2004년 창단 후 17년 동안 봉사단체로 활동하면서 한인사회의 번창과 단합에 기여해왔으며, 특히 40만 불 이상을 기부함으로써 한인사회의 여러 프로젝트의 성공적 결과에 기여
75	오공운	민단나가노현 지방본부 고문	•오공운은 민단을 비롯, 나가노 한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동포기관의 임원을 역임하며, 무연금자 급부금 지급 성사, 올바른 역사인식에 입각한 역사교과서 채택 노력 등 재일동포의 지위향상과 권익옹호에 기여
76	오상근	북경한국인회 상임부회장	•오상근은 북경한국인회 코로나19 상황 TASK 팀장으로서 마스크 배포, 전세기 운영 지원, 자가격리 지원, 영사 업무 대행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코로나19로 불안한 시기 북경한인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
77	오태훈	민단도쿄본부 고문	•오태훈은 다년간 민단도쿄본부와 민단도쿄도시마지부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역사왜곡 교과서의 불채택, 동포사회의 권익신장과 단합, 조직 강화와 잔결, 한일친선교류에 기여
78	오한남	재바레인한인회 고문	•오한남은 30년 가까이 바레인에서 한인회장, 민주평통 중동협의회 부회장, OKTA 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한인사회가 형성·발전하는 과정에서 상징적이고 구심점적인 역할을 하며 국익 제고와 한인권익 신장에 기여
79	워싱턴 여성회	단체	•워싱턴여성회는 1982년 창립 이후 40년간 꾸준히 차세대를 위한 장학사업과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국제결혼여성단체로서 공공외교 첨병역할과 지역사회봉사로 한미우호증진에 기여
80	故원심창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전단장	•故원심창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창립멤버로 활동하면서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확립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6.25 전쟁 시 구호금 송부, 남북 통일운동 조직인 남북통일촉진협의회(1955)와 조선신문사(1958)를 설립하여 일본내 동포사회의 통합과 계몽에 기여
81	원현희	마다가스카르 한인회장	•원현희는 20년간 한인들의 단합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인들을 위한 전세기 지원, 코로나19 백신 확보, 구호소 설치 등 한인들의 안전과 보호에 힘썼으며, 현지 공공기관에도 방역물품을 제공하는 등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
82	유경란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 회장	•유경란은 지난 30여년간 동포사회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봉사하였으며, Sargent Shriver National Center, Crossroads Fund, Presbytery of Chicago 등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모범적인 사회봉사를 통해 미주류사회에 한인커뮤니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 기여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83	윤상호	하노이 한인회장	•윤상호는 2014-2017년간 한인회 수석 부회장으로 교민 장례지원을 전담하여 교민들의 재난과 상조현장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코로나19 관련, 격리시설 및 취약계층에 생필품 지원, 한인회 특별기 운행, 코로나19 단신팀 운영, 코로나 극복을 위한 캠페인실시로 교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헌신
84	윤성용	미한국상공회의소 (코참) 부회장	•윤성용은 10년간 한국 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교포기업 및 단체들과의 정보교환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한국기업 인턴십프로그램 운영 등 동포사회의 경제적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교포자녀들을 위한 한국학교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
85	윤인진	고려대학교 교수	•윤인진은 재외 한인연구와 교육을 30년 넘게 열정적으로 수행한 우수학자이며 교육가로 재외한인에 관한 많은 연구물 출판 및 재외한인학회 회장, 재외동포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재외동포 정책 개발에 기여
86	윤자성	미주 안중근의사 기념사업재단 회장	•윤자성은 독립지사 ‘윤능효지사’의 손녀로 34년간 미국에서 ‘안중근의사기념사업재단’을 운영하여 미주한인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동포사회 및 주류사회에 안의사의 애국심을 기리고 알림
87	이강현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이강현은 20여년간 여러 경제인·한인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인도네시아진출 한인기업의 애로사항과 고충해결을 위한 대변자 역할 및 양국 간의 가교역할은 물론 경제 협력 활성화에 이바지
88	이규섭	민단효고현지방본부 상임고문	•이규섭은 54년간 효고 민단에서 재일동포 권익옹호, 재해대비 방재 대책 추진, 고령 동포시설 건립 등 활동을 통해 차별받지 않는 재일 동포사회 만들기와 동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큰 공헌
89	이규영	쿠웨이트한인회 재외국민보호 담당이사	•이규영은 외국인 직원의료비 대납 등 지역사회를 위한 선행 및 한·쿠웨이트 수교 40주년 행사지원을 통한 한·쿠웨이트 공공외교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교민귀국을 위한 전세기 마련, 구호 식료품지원 사업 등 어려움에 처한 쿠웨이트의 한인들의 안전 확보와 지원활동에 공헌
90	이근무	시카고한인서로돕기 센터 이사장	•이근무는 한민족 경제공동체 운동으로 민족 번영과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왔으며 시카고 한인무역인협회 창립, 한미농촌연구회 설립과 세계 한인무역인협회 회장 역할을 통하여 한미 경제 상호 교류와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차세대무역인 발굴 지원에 공헌
91	이기봉	미동남부한인회 연합회 제29대 감사	•이기봉은 동남부지역 한인커뮤니티의 역동적인 성장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공감대조성, 한인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몽고메리 지역 노인회 및 장애인 협회 후원 등 한인사회 발전과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
92	이내건	홍콩한인회 자문위원	•이내건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선국적인 역할을 담당한 모범적인 기업인으로서 우리나라 해운업 발전 및 수출입 무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40여 년간 한인단체장으로서 홍콩한인사회 발전과 화합에 공헌
93	이덕호	재오스트리아 한인회 부회장	•이덕호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오스트리아 요식협회 회장으로 한국요식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인회 부회장을 맡으며 각종 한인회 행사준비 및 진행을 맡아 동포사회의 화합과 단합도모에 기여함
94	이명수	재독글뤽아우프회 자문위원	•이명수는 1979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한인단체(한인회, 재향군인회, 재독글뤽아우프회, 삼일절 기념 사업회 등)에서 20년이 넘는 활동을 통해 동포사회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
95	이문주	텍사스대 샌안토니오	•이문주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매릴랜드주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한인이민자와 노인 등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보건과학대 교수	취약계층동포들에게 건강 상담과 무료진료 서비스,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제공하는 등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
96	이 영	스페인유도연맹 명예경기위원장	•이영은 50년간 스페인에서 유도지도자로 활동하며 한·스페인 간 유도교류 활성화 및 한국인의 위상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스페인 태권도협회를 분리 독립시키고 마드리드 한글학교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97	이영주	한-인니 산림센터 행정실장	•이영주는 2011년부터 한·인니 산림센터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센터개소 업무를 시작으로 10년간 룬핀 양묘장 및 센톨 생태환경관광센터 건립 등 한·인니산림 협력의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정부의 신남방정책사업에 크게 기여
98	이용화	오타와 한글학교 교장	•이용화는 오타와 한글학교 교장 및 이사장으로 10년간 재직하며 이민 2세의 한국어교육에 앞장섰으며, 한인회장 및 한인종교단체 활동으로 봉사하며 동포사회의 화합에 기여
99	이재훈	재아르헨티나 한인상공인연합회 고문	•이재훈은 재아르헨티나 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인교민의 경제단합과 교민사회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다년간 한중남미 한상대회 정례화를 주도하여 중남미 동포 간 교류 활성화 및 현지 한국학 연구센터, 국립공대(UTN), 지역사회 다른단체들이 발전하도록 후원하여 교육, 경제분야의 상호발전에 기여
100	이정실	워싱턴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이사장	•이정실은 9년간 소녀의 상 건립과 위안부 관련 전시회 및 컨퍼런스 주관, 위안부결의안에 대한 증언, 위안부 관련 논문 발표 등 미국 내 위안부문제를 다방면으로 알리고 교육하는데 기여
101	이종근	민단산하 한국원폭피해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근은 한국 원폭피해자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피폭자 증인 찾기 및 비핵화 관련 강연을 진행하고 미쓰비시 강제 징용자 피해자 유골의 본국 송환 촉구 등 재일동포의 권익증진 및 대한민국 이미지개선에 기여
102	이종수	훈스 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이종수는 루마니아한인회 회장으로서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약 25년간 봉사하였고, 공공외교 참여와 농업분야 교류 등을 통해 루마니아 내 한국인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103	이종욱	민단도쿄 에도가와지부 상임고문	•이종욱은 약 45년간 민단도쿄에 도가와지부에서 역임하며 재일 동포들의 재외국민 선거 독려, 헤이트스피치 근절 노력 등 도쿄의 재일동포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화합, 한일 우호친선에 기여
104	이진복	말레이시아 리컨설팅월드 회장	•이진복은 26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많은 한국기업들의 현지공사 수주 및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현지 정부의 한국교민들을 위한 치안 및 이미지 증진, 또한 한국인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
105	이진영	괌한인회 前한인회장	•이진영은 괌 한인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난 7년간 괌 해변도로 청소 봉사활동을 지속 실시하여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조성하는 한편, 괌 지역 사회와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우리 동포의 위상 제고에 기여
106	이창현	알칸사주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창현은 한인학생의 현지 조기정착 지원, 동포 상공인들의 권익 신장, 한인 차세대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 사진첩 발간 사업 추진 등 한인동포사회의 발전과 위상 강화에 기여
107	이한원	한리'스 태권도 아카데미 관장	•이한원은 25년간 한리'스 태권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지역 내 태권도를 전파하고 현지 저소득층 아동 무상교육 지원, 매년 1000명 도복 무료보급 등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108	임헌국	굿스토어 앤젯 대표이사	•임헌국은 사업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들의 가족, 한국을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사랑하는 현지인을 초대하여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지속적으로 한국·뉴질랜드의 관계 발전에 기여
109	임형빈	한미충효회 회장	•임형빈은 36년간 지속적으로 노인사회 복지사업, 추수감사절 계기 행사 개최를 통해 한인들에게 봉사하였고, 한인차세대에 한국의 효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충효행사를 주최하여 한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
110	임혜선	비엔나 한인여성합창단 및 한인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임혜선은 비엔나한인여성합창단 및 2008년 이후 매년 정기 연주회 개최 및 한인소년소녀합창단에서 주재국 내 양로원 등 방문 연주회(40회이상)를 통해 한·오 친선 증진 및 한인사회의 문화적 발전에 크게 기여
111	임훈기	중국한국인회 총연합회 운영위원	•임훈기는 1994년부터 우리기업과 교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 왔으며, 최근 몇 년간 북경한국인회 감사 및 중국한국인회 감사, 정관 개정위원으로 봉사하며 교민사회 발전에 공헌
112	장도순	제19기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회장	•장도순은 교육기금 사무총장으로서 한인회관의 재정적 독립에 기여하고 2008년부터 재영한인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소송문제로까지 확대된 내부 불화를 수습 및 통합된 한인회 출범에 기여
113	장명술	보스톤코리아 편집장	•장명술은 미국 동북부 유일의 한인신문인 ‘보스톤코리아’ 발간을 통해 한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동포 간 격려 및 상호연대 촉진 등 공익을 우선하는 편집 방침으로 보스톤 지역 동포사회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
114	장종진	튀니지 한인회장	•장종진은 지난 16년간 튀니지한인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튀니지한인사회의 위상 제고, 재외국민 보호·안전, 한·튀니지 경제 협력 관계 증진 및 한인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기여
115	재미 한국학교 위싱턴 협의회	단체	•재미한국학교 위싱턴협의회는 한인2세 동포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교사연수회 및 학생 대상 한국어 대회를 개최하여 미국 내 한인들에게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미국주류사회의 교육 및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공헌
116	정금숙	웰튼한인회 부회장	•정금숙부회장은 10여 년간 한인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봉사를 하였으며 동포 2세들의 한인 정체성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가람무용단을 후원하여 우리문화 홍보에도 힘씀으로써 동포사회의 단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
117	정성국	콜카타한인회 회장	•정성국은 콜카타한인사회 교민 정착 지원, 한국홍보 문화행사 개최 등 콜카타한인사회를 활성화시키고 현지 한인사회와 인도사회 간 네트워크구축에 기여
118	정성기	재칠레한인회 회장	•정성기는 1979년 이민 1세대로서 한인초기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2005년부터 한인회 이사로 활동하여 한인사회 봉사를 통해 한인들의 단합과 권익신장에 기여
119	정신기	Blessing Bread for Homeless 대표	•정신기는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13년간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고 있고 교도소, 한국학교에서 봉사하는 등 여러 선행으로 현지사회에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
120	정재욱	일반사단법인 신주쿠한국상인 연합회 전무이사	•정재욱은 30여 년간 재일한인상인들의 권익시장과 신오쿠보코리아타운 활성화에 기여하며 한인상인의 위상을 높이고 한일 민간 교류를 주도하며 한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공헌
121	주점식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장	•주점식은 2005년부터 해밀턴 한인회에 봉사하며, 캐나다 교민동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캐 항공협정 체결 시 2만장의 동포 서명을 받아 협상단에게 전달하여 동 협정 체결 성사에 기여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122	차민영	서울메디칼그룹 회장	•차민영은 1993년 서울메디칼그룹이라는 독립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미주한인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재외동포의 건강증진과 한인사회의 위상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123	천진한국인(상)회	단체	•천진한국인(상)회는 27년간 천진교민과 한인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교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음
124	최규재	앵커리지 노인회 회장	•최규재는 다년간 한인회장, 노인회장을 역임해 재외동포사회의 화합과 지위향상에 노력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등 한국이미지 제고에 기여
125	최덕광	알스툼(Alstom)사 전시니어 고문과학자	•최덕광은 미국 원전업체인 C-E(CombustionEngineering)사 근무시 동사의 한국진출(System80, 영광3,4호기)을 통한 원자력기술 한국 전수 및 이전에 기여하며 미주 한국일보에 에너지와 과학을 주제로 한 기고를 통해 한인 사회의 지식 발전에 기여
126	최문환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최문환은 미주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한미동포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단체들을 지원하며 사회봉사를 실천함으로써 미주한인사회 발전에 기여
127	최성백	시안한인학교 교장	•최성백은 시안배화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며 2011년부터 10년간 한인회에서 교육자문위원 및 고문, 시안한인학교 교장 및 운영위원장으로 한인 자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봉사활동 진행
128	최수정	에스파놀병원 내과전문의	•최수정은 주재국 내 외국인 최초 내과 전문의로서 우리 국민이 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현지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과 외국인 환자에 대한 형평성 부재에 대해 고민하면서, 주변 의료진들을 설득하여 우리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
129	최영호	하와이 대학교 명예교수	•최영호는 역사학계의 국제적인 석학이자 미주 한인 이민 역사와 해외 독립운동 역사에 정통한 한국학 원로학자로, 50년간 학문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하와이 동포사회 권익신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
130	최용치	민단도치기현 지방본부 상임고문	•최용치는 50여 년간 재외동포를 위하여 반평생을 헌신해온 자로서 현본부 2기관장 역임 및 1987년 도치기 한국청년상공회를 설립하는 등 도치기민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131	최종태	효고현 제일한국상공회의소 상임고문	•최종태는 동포2세 기업가로서 재일한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민단, 한국청년회의소, 한일친선협회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모국과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였고, 한·일간 친선 및 우호협력 증진에 공헌
132	하윤상	OG COMPANY 대표	•하윤상은 중남미 식품연합회장으로 재임하며 우리 식품을 브라질에 홍보해왔으며, 주재국의 불안한 치안문제 해소를 위해 CCTV 설치 등 꾸준한 기부와 함께 치안위원회위원으로 교민보호에 기여
133	한경희	네덜란드 한인회 운영위원	•한경희는 14년간 한인회에 봉사하여 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취약계층 및 유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네덜란드 한인사회 구성에 기여
134	한광수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한광수는 온라인 비즈니스 교류 플랫폼인 한상넷 사이트 구축·운영,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 사업 예산 신규확보 및 시행, 재중동포 정체성함양을 위한 한국 도서 지원 등 동포사회의 정체성 함양을 지원하고 모국과 동포사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
135	한국국제학교	단체	•한국국제학교는 한국어 시험 및 대회 개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싱가포르 거주 재외국민의 정체성 함양과 한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코로나 극복 교수학습 방법 혁신사례로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136	한인신협	단체	•한인신협은 1988년 설립된 이후 대표적인 한인지역에서 한인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2019년 자산규모 5억불을 돌파하였고 경영이익을 다양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한인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한인의 권익신장과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
137	호주 호스피스 협회	단체	•호주 호스피스협회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단체로 동포 암환자 및 장기 중증 질병 한인 대상 각종 치유프로그램 운영, 너싱홈 방문콘서트 개최, 장례봉사, 자원봉사자 교육 등으로 불우·소외동포가정 지원에 이바지
138	홍순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부분부 고문	•홍순일은 42년간 재일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300만엔의 금품을 지원하여 재일동포사회의 발전과 민단오사카본부의 재정안정화에 기여
139	홍승표	KIC중국 고문	•홍승표는 한·중 민간 인적교류확대에 기여하고 재중한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한국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는 등 동포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
140	홍윤선	시애틀한인회 이사장	•홍윤선은 미국 내 한인동포 사회위상을 높이고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시애틀시, 린우드시 경찰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연결에 공헌
141	홍콩 한인여성회	단체	•홍콩한인여성회는 2002년부터 홍콩에 거주하는 한인여성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꾸준한 봉사활동과 다양한 한국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홍콩지역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
142	황명화	싱가포르한인회 대의원	•황명화는 싱가포르한인회, 세계 한민족 여성재단 및 NGO단체 WillingHearts에서 활동하며 여성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과 복지활동을 통해 싱가포르한인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고 한인청소년의 청년 멘토링 역할을 하는 등 한인사회를 발전시키고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143	황호진	와이비스시 사장	•황호진은 현재 오클랜드한인회관 관리위원으로 뉴질랜드 지역회사와의 파트너십 체결, 영주권 취득 지원, 영어 교육 서비스 제공 등 동포사회 일자리 창출에 지대하게 공헌

끝.